로컬플러스

군산署, '교통환경정비기간' 운영

군산경찰서(서장 김동봉)는 불편한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5월 한달을 '교통환경정비기간'으로 정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무단횡단 방지펜스 설치 요구,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요구 등 주변에 설치 및 개선이 필요한 교통시설에 대해 신고하면 된다.

경찰은 교통시설 개선 신고 시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즉시 개선될 사항은 현장 조치하며,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협의를 이끌어내 시민편의를 위주로 하는 교통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군산=문정곤기자

도내 시·군의회 체육대회 익산시, 종합우수상

최근 제14회 전라북도 14개 시·군의회 체육대회에서 익산시의회(의장 조규대)가 종합우수상의 쾌거를 달성했다.

무주군 군민체육관에서 개최된 이 날 체육대회에서 익산시의회는「뛰고 뛰고 또 뛰면 시민행복 빠름 빠름 빠름!」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전 의원이 똘똘 뭉친 힘을 과시하며 경기에 임한 결과 종합우승의 결과를 낳았으며, 타 시군 의외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조규대 의장은"오늘처럼 모두가 협력하고 단결한다면 못할 것이 없으며, 이는 곧 시민의 행복으로 이어지고, 앞으로도 이러한 저력을 바탕으로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자립역량 강화교육 실시

'군산시는 지난 29일 보훈회관에서 희망·내일키움통장 가입자 및 자활근로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자립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

희망키움통장은 근로활동을 하며 3년 동안 적금을 적립하면 만기 시 본인의 저축액에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지난 2010년 도입됐다.

내일키움통장은 자활사업 참여자가 3년 이내 일반시장 취·창업시 본인의 저축액과 내일키움 장려금, 내일키움 수익금, 내일근로 장려금을 추가지급 해주는 자산형성사업으로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군산시는 이번 교육을 바탕으로 희망·내일키움통장 가입자와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교육실시와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자활의지 제고 및 자립역량 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미숙한 예산처리 '도마위'

국가사업 공모 통해 확보한 수십억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반납 위기 놓여

각종 공모사업 신청시 사업성 과 추가부담 예산 등 고려하지 않아

군산시가 국가사업 공모를 통해 확보한 수 십억원의 예산을 미숙한 행정처리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이나 축소 될 위기에 놓여 졸속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본보 3월 28일자 8면>

시는 지난해 문체부 공모사업을 통해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사업'에 선정돼 5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하지만 시는 총 27억원의 매칭 사업비(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해 이 사업과 관련 확보된 국비를 반납할 처지에 놓였다. 문제는 이 같은 공모사업 가운데 사업의 취소나 변경, 축소 등 행정절차 미흡으로 인해 국·도비를 반납하거나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것.

앞서 지난 2012년 산자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수출전략형 미래그린상용차부품연구개발사업'은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해 이미 반영된 국비 지원금마저 축소 될 실정이다.

이 사업은 당초 1736억원(국비 1117억, 도비 177억, 시비 177억, 민자 265억)의 사업비를 투입, 옥구읍 수산리(구 염전부지) 일원에 상용차 핵심부품 기술개발 및 실증?연구기반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산시는 이 사업을 위해 159억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하지만 현재 총 94억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 가운데 4차 년도 미 매칭예산 37억원을 오는 6월까지 확보해야 하며, 사업기간 내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잔여 사업비(국비)를 지원 받지 못한다.

시는 추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2차 추경이 오는 9월에 열리는 관계로 기간 연장을 통해 37억원 전액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시가 최근 2년간 선정된 53건의 공모사업 가운데 추가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은 7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종 공모사업을 신청하면서 향후 사업성과 지자체가 추가부담 할 예산 등은 고려하지도 않고 공모사업을 계획한 관계자들의 무사안일 행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향후 공모사업 신청 단계부터 철저한 사전 계획이 요구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공모사업에 선정되더라도 사업부지 매입, 건물 신축 등 위해 시비를 확보해야하지만 열악한 재정 상태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며 "우후죽순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해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실과별로 현실에 맞는 사업계획을 세우는 등 공모사업 추진에 있어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원광대학교병원-육군 35보병사단 업무협약 체결

장병들 건강증진 도모 상호 발전 협력체계 구축

원광대학교병원 이 지난달 28일 전북에 자리 한 육군 제35보병사단 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본부청사 2층 사단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최무영 원광대병원장, 최창규 사단장을 비롯한 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 했다.

이날 협약은 전북의 방패로 향토 수호에 여념이 없는 제35보병사단 장병들의 응급환자 발생 시 효율적인 이송과 신속한 진료, 질병 예방관리는 물론 양 기관의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원광대병원은 육군 제35보병사단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응급처치 교육, 산재 교육, 안전관리 에 대한 교육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원광대, 세계평화 활동에 기여 세계불교도우회 사무총장

팔롭 타이아리 에게 명예 철학박사 학위수여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종)는 팔롭 타이아리(65) 세계불교도우의회(WFB) 사무총장의 명예 철학박사 학위수여식을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교내 학생지원관 6층 첨단스튜디오에서 개최했다.

1950년 태국에서 태어난 팔롭 타이아리 사무총장은 왕립 탐마삿대학교에서 불교문화연구클럽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종교 간 이해와 관계에 관한 특별 과정으로 깊은 연구를 시작해 세계불교도우의회 회원이 됐으며, 변호사 활동과 더불어 1999년 세계불교도우의회 사무총장으로 선임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특히 불교도 간의 화합과 단합을 비롯해 불교의 계율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준수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수많은 국제적 자연 재난의 피해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해 왔다. 또한, 불교를 부흥시키기 위해 영어 및 기타 언어로 불교 가르침에 대한 번역과 정리를 실행하고, 불교도 어린이 돕기 기금을 설립하는 등 세계평화와 교도들 간의 우의와 화합을 위해 국제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원광대는 세계적으로 가장 큰 불교도 모임 중 하나인 WFB 사무총장으로서 세계적으로 원불교의 위상을 높이고, 평생을 세계평화와 불교도인들의 단합과 일치를 위해서 노력해온 공로를 인정해 팔롭 타이아리 사무총장에게 명예 철학 박사학위를 수여했다.

김도종 총장은 "팔롭 타이아리 박사님의 불교에 바친 일생이 더욱 빛나기를 기원한다"며, "명예박사학위 수여를 계기로 원광대와의 만남이 더 크고 깊은 인연의 고리를 만들어 한국과 태국, 원광대와 태국 명문 대학들 간에 많은 친교의 장이 열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립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공모 선정

강사·운영비 지원 받아 강연·탐방·모임 진행

군산시립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도서관협회가 함께하는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됐다.

'길 위의 인문학'은 인문정신문화를 진흥하고 독서문화를 진작시켜 지역사회에서 도서관이 문화·교육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인문학의 일상화와 생활화를 추구하며, 독서에 현장을 연결함으로써 새로운 독서문화를 활성화시켜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군산시립도서관은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강사비와 운영비를 지원 받아 '문학과 예술, 군산으로의 산책'이라는 주제로 강연 및 탐방과 모임을 진행한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추진

3,000만원 들여 전기·태양광 울타리 등 설치지원

익산시는 매년 야생동물 인한 농작물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신청을 받는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총 3,000만원을 지원하며 전기·태양광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의 설치지원을 통해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익산시에서 경작하는 농·임업인으로 매년 반복 피해 발생 지역, 멸종 위기종으로 인한 피해 발생 지역, 과수나 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을 우선 지원한다. 총 사업비의 60% 범위에서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증가되고 있는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지원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인간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녹색환경과(859-5436)에 문의하면 된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소방서, 도민체전 기간 119안전체험부스 운영

군산소방서 는 2016전북도민체전 기간 동안 '119소방안전 체험부스'를 운영해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체험부스는 군산을 방문한 도민 및 선수단, 내방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맞춤형 소방안전체험교실에서는 참가자들이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을 통해 안전을 익히고 배워 안전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소화기 체험, 심폐소생술 및 심실제세동기 체험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완강기 하강 및 에어매트 낙하 등 군산구조대의 시범과 함께 각종 재난현장에서 사용되는 특수 구조장비 전시 부스도 함께 운영해 경기장을 찾은 많은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군산=문정곤 기자